

# LIBRARY NEWS

교 훈  
진리 · 창조 · 봉사

건 · 학 · 이 · 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제 10 호 2006년 6월

도서관 소식(반년간)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중앙도서관 T.051-320-2065

## 세계 책의 날, 지하철 문고용 도서 450여권 기증

### 지역인사칼럼



건축가  
김명권

**건**축은 단지 죽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다.

건축은 흔히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콘크리트라는 물리적인 덩어리 속에 인문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식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도서관 건축이야말로 건축 정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다. 고대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도시의 중앙에 도서관을 배치하곤 하였다. 서양 고대 문명의 가장 큰 즐거 헬레니즘의 본산 알렉산드리아 역시 그 한가운데에는 도서관이 있었다.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15세기 구텐베르그가 활판인쇄 기술을 발명하여 서적을 싼값으로 대량 보급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현재도 많은 도서관들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의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수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자료를 검색,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서관 시스템 구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으로 시대별로 변화를 해 왔다. 민석기념도서관 역시 이러한 큰 문명적 흐름에 맞추어 지어져야 하고, 설계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도서관 건축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 때문이다.

민석기념관은 현재 동서대학교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전체 마스터플랜의 중심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 6층, 연건평 약 3,800평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형태적인 특징은 웅장한 독수리가 힘찬 비상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건물의 중앙에는 중정이 있어, 도서관의 어느 곳에서든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배려되어 있다. 건물의 특징 있는 외관 외에도 유비쿼터스의 공간 개념이 집약되어, 앞으로 동서대학교의 지식보고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적인 측면과 유비쿼터스적 정보환경, 인간중심의 공간 개념들이 결합된 민석기념도서관은 디지털로식 대학 건축이라고 자부해도 될 듯하다.

도서관의 3대 요소는 장서, 시설, 직원이라고도 한다. 진정한 도서관의 완성 = 동서대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건축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로서 기대와 희망으로 도서관의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 전체의 애정으로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World Book & Copyright Day, 유네스코가 1995년 만든 이래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성대한 축제로 자리잡아온 행사를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부산 지하철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캠페인 등을 통하여 모은 450여권의 도서를 지하철 냉정역에 역내 문고용 도서로 기증을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책갈피를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하였다.

꾸준한 도서기증 행사는 도서관이 지닌 지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 지역사회와 대학간 협력 기반을 확립, 지역주민에게 독서기회의 제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 한국경로복지회 변창남 회장에 감사패 전달

우리대학은 4월 29일 접견실에서 변창남 한국경로복지회 장에게 도서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박 총장은 "후학 양성을 위해 도서를 기증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뜻에 따라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변창남 회장은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사회복지·문학관련 도서 500여권과 10여점의 그림을 기증했다. 변 회장은 한국경로복지회장, 전국노인복지 단체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노인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정보네트워크 KITA.net

■ 수출입무역관련 각종 통계자료 이용 가능

■ 종합무역정보 이용

- 종합무역정보는 해외바이어, 거래일선, 국내외 상품정보, 무역 계약, 운송물류, 무역 통계, 국가 정보 등 50여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무역정보DB임



▲ 사이트: <http://db.kita.net>

■ 무역실무에 꼭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 무료제공

- 각종 수출입서식 및 작성요령과 수출입관리 자동작성 프로그램  
- 무역실무매뉴얼

■ 회원 ID : dong2066, 패스워드:library

■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나기성([gee109@dongseo.ac.kr](mailto:gee109@dongseo.ac.kr))

## 신입생도서관 활용과 자기 주도학습 교육 실시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자 도서관 이용교육을 신입생 전체를



상대로 2006년 3월 13일 ~3월 30일 실시하였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자율적인 학습과 주체적인 학습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및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교과 학습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19회 작가와의 만남

제19회 작가와의 만남은 소설가 김성일님을 모시고, 2006년 04월 26일, 14시 중앙도서관 9층에서 "사랑의 블루오션"이란 강연제목으로 행사를 가졌다



#### 작가약력

출생 : 1940 서울출생

학력 : '65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연보 : '61 현대문학지에 단편소설 「분묘」, 「흑색시말서」로 소설추천 완료(김동리 추천)

'83 1983년 한국일보<땅끝에서 오다>연재

'85 제2회 기독교 문화상 수상

현재 한세대 겸임교수, 창조사학회 부회장

작품 : 장편소설 『땅끝에서 오다』, 『홍수 이후』(전4권) 등 20권의 소설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등 2권의 간증집을 홍성사에서 출간했으며, 그 외에 『성경과의 만남』,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전3권), 『성경의 신비』 등 외 다수.

#### 작가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관하여 글을 쓰는 이는 많지만, 그들 중 진정 크리스찬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소재는 좋으나 문학적이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문학적은 있으나 소재가 비신앙적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작가 김성일은 한국의 기독교계가 아껴야 할 참 보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문단에서 이미 그 문학적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는 누구 못지 않은 뜨거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도로 아내의 암을 극복한 감동적인 체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워주며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에 눈뜨도록 인도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책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신앙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 초청작가칼럼

### 방황의 추억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일학교부터 입학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떠났다. 문학 수업을 위해 철학서적을 찾아가며 읽다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생활은 친구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험적이고 무질서했다. 대학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다. 당시에도 입학시험을 친 다음 면접 고사가 있었는데 내 행색부터가 다른 입학생들과는 너무 달랐다. 머리는 길게 기른 장발이었고 멀쩡하게 개인 날씬인데도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면접하던 교수님 중 한분이 내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었을 때 서슴치 않고 프리드리히 니이체를 대었고 그 이유를 묻자 니이체의 철학을 일사천리로 설명했다.



다행히 나는 공과대학에 합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접 때 내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었던 교수님은 교양과목의 철학 교수였고 놀랍게도 니이체 전문가였다. 그분은 내가 합격하여 강의 시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셨다. 내가 2학년 때 '현대문학지'의 추천을 거쳐 작가로 등단하자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라며 자랑을 하셨다. 공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나는 늘 별종이고 이단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업이 되면서 나는 점점 보통 사람이 되어 갔다. 백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상사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 사원이 되었고 승진을 하자 부하들을 일시불란하게 지휘하며 일하는 유능한 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나는 방황하는 인간이었던 모양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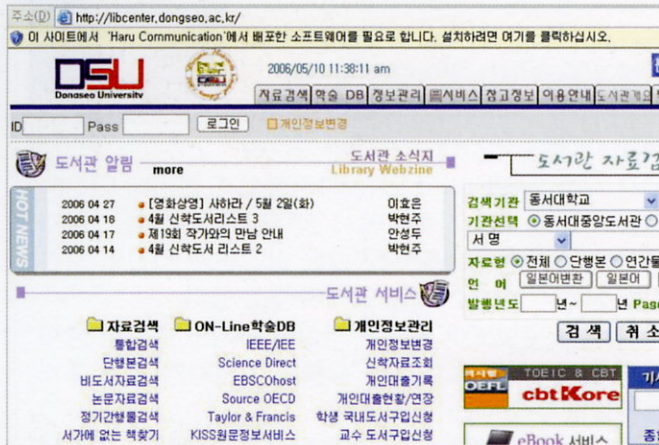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문학에 매달렸던 나는 기독교문학으로 전향해서 49권의 책을 썼다. 최근에 애착을 가지고 공들여 쓴 작품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3부작 '임마누엘'인데 나는 그 제1부의 제목을 '방황'으로 달았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십대의 방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나의 경우와 비교해보며 그 전개와 방황을 추적해 보았던 것이다.

내 경우에 그 방황의 시절은 아름다웠다. 그냥 자신을 포기하고 땡개치는 방황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데서 오는 고뇌의 방황이었기에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방황은 청춘의 특권이다. 장발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찢어진 바지도 입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미래를 위한 보석이 될 때 방황은 진정 멋진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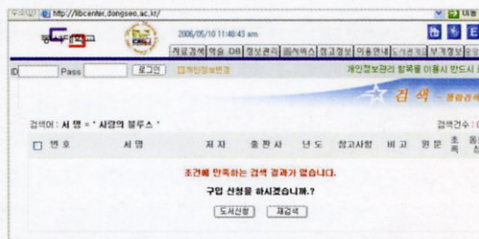
이번 코너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희망도서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접속하기



방법 1)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폴더내의 "학생 국내도서구입신청란"을 클릭한다.

방법 2)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도서관자료검색란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다. 소장



중인 자료라면 기본검색결과가 출력되고, 소장자료가 아니라면 도서신청 메시지가 화면이 나타난다.



#### 2. 로그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자신의 학번과 패스워드를 입력한다(패스워드 초기값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 3.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신청도서 구입신청"란의 공란을 작성한다. 이때 서명, 저자, 출판사는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소장 중인 자료를 신청한 경우 소장 중인 자료가 있다는 표시와 함께 신청이 거부된다.

#### 4. 신청 이후 속지 사항

- \*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대학도서관 자료로 합당한 학생 신청자료는 모두 구입합니다.
- \*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필히 확인합니다.
- \* 이미 도서관에 소장중인 자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청도서는 도서관 입수 및 검수 후 신청자에게 도착메일을 발송하며, 2-3일 후에 도서관 1층 신착자료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도서의 현황은 개인정보 폴더내의 "신착도서조회"란과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료유형란에 대출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박현주 (hyunj73@dongseo.ac.kr)

### 집중탐구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집중탐구코너 마지막 3회를 연재한다.

국제관계학부 전현중 교수

## 제3편 프랑스 대학 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

- 대학도서관의 파트십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임(정형화/영속화/제도화)
- 전국 대학, 전문대학 도서관 연계 및 고등교육·연구담당자, 국가정책 당국자 등을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 1) 대학간 자료협력 파트너십 구축

- 교육과 자료간의 관계
  -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방법 일반화 : 디지털화된 자료 제공
  - 디지털화된 자료의 대학간·교수간 공유
  - 교육 과정 내 디지털화 된 자료이용에 관한 내용 반영 : 교수와 사서 역할 재정의
  - 강의실, 연구실, 자습실 등에서 다수 이용자가 동시 자료이용 가능
  - 도서관과 교육과의 협력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 저작권, 라이선스 등과 관련된 문제 중요성 점증, 동일한 사용권에 대해 대학이 여러번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연구와 자료의 관계

- 비용 1회지불로 디지털자료와 인쇄자료 동시이용
- 동시이용가능성은 자료서비스 조직화를 가능하게 함
- 추가비용: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라이선스 구입비용
- 연구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대학의 일반적인 주요 정책에 포함
- 연구자료의 공동서비스는 자료의 분산을 막고 연구실간 협력을 요함
-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필요

### • 컴퓨터와 자료의 관계

- 사서와 정보관리기사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 : 대학도서관의 일반서비스와 정보센터 서비스의 연계·체계화 필요(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차원의 자료협력 파트너십 구축

- 중앙행정부서 간 연계
- 자료협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 자료부문 경험공유

### 3) 국제수준의 자료 파트너십 구축

- 연구분야의 국제간 협력 확대
- 대학도서관 자료구입이 국제화/고가화되고 있어서, 국제간 자료협조,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대학도서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 설치
- 불어권 및 유럽 자료생산물에 대한 구매 컨소시엄 구성으로 고학기술 출판사의 경쟁 및 가격조정 유도
- 유럽차원의 대학도서관 디지털자료 공유를 위한 국가간 노력 증대

### ▶ 결론 ◀

- 국내 및 국제 대학간 자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대학도서관 지원을 통한 지역혁신 및 발전
-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담부서 설치
- 대학도서관 현대화 및 신기술 적용 확대
- 연구/교육 부문과의 연계 확대
- 관련 전문가의 협력 강화
- 대학, 연구소 및 정부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 이 한권의 책

## Make peace with anyone

(성공하려면 적과도 화해하라) / David J Riverman(2004)

한잔의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저어 가며, 자신을 마시곤 했던 지난 대학시절. 스무살, 아니 성인이 된다는 두려움과 희망에 허공을 바라보며 외쳤던, 아! 스무살. 바람 앞에 바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 앞에 바람으로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되자고 김신의 '대학별곡'이라는 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친구가 그림고, 낭만과 추억에 항상 배고팠던 시절. 저마다 수업 후 달려 나갔던 학교 앞 흐름한 통솔집. 비록 한잔의 막걸리 일망정 아니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릴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진실했고, 너무나 간절했던 그 시간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타인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타인의 주장에 '그렇지하고 추렴구를 던지던 그 시절, 그 때의 친구들이 그림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화려한 조명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PC방에서 저마다의 개성을 찾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닐까. 물론 시대의 흐름을 어쩔수야 없겠지만, 이제 나의 문제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실력이라고 자랑하는 학생들. 인간대 기계라는 만남속에 자신의 이야기만을 주장하고 남의 주장은 들어주지 않는 기계 앞에 자칫 인간대 인간의 만남에 대한 준비는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해 본다.

지금까지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경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존감의 핵심에는 자유가 있다. 개인적인 일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자신을 바람직하게 여길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자. 거북하고 불안한 느낌일 것이다. 자신이 능력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한없이 초라할 것이다.

이처럼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평화롭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최고인 인간대 기계와의 만남속에 자신의 자존감과 타인의 자존감이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리버만의 '성공하려면 적과도 화해하라'는 이 책은 인간대 기계라는 만남속에서 자츄 잃어버리고 있는 자아상실과 인간대 인간의 만남의 공동체인 사회속에서 상대방을 대하며 그들과 같이 공존하며 서로의 자존감을 살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위대한 중재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도 예전처럼 보기 좋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끊이지 않고 불화가 계속되어 장기간 소원해진 상황에 뛰어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떠한 관계나 상황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일이 꼬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 자기애란 곧,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처럼 주문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일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겠지만, 자존감이란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른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을 통해서만 손에 넣을 수 있다. 인간대 기계와의 만남이 아닌 인간대 인간의 만남 속에 자신있게 하늘을 바라보며 아! 나의 스무살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이 되길 이 책을 통하여 간절히 바란다.



레포트 과학부 박병주교수

## 도서기증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의 실천 사업으로 교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도서 및 비도서자료(교내 행사관련 모든 자료 포함)를 기증받아 동서가족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서, 비도서)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등이 있으시면 기증 또는 대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서관 납본에 관한 규정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제4장 제23조(자료의 납본)"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한다.

1.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석·박사 학위논문은 전자문서(파일)와 책자형태의 자료 3부 이상
2. 부속, 부설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2부 이상
3. 본교 소속원이 발행한 저서나 연구비를 받아 발행한 단행본 저서 2부 이상
4. 본교에서 생산된 오디오 및 영상자료, CD-ROM, 디지털 영상 및 음원, 마이 크로폼피서 1부 이상

## 중앙도서관 독후감 시상

순위	추천도서	학부/전공	학번	제출자
우수작	목적이 이끄는 삶	미디어창작	20040390	심새롬
가작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프로덕트디자인	20022398	이은정
가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광고PR	20040083	김후영
가작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어과	20010702	강효정
장려	창가의 토토	디지털방송과	20030369	김은미
장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영어과	20011038	장인영
장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미디어창작	20000817	정승우
장려	등대지기	신발지식공학	20042088	이준호
장려	창가의 토토	영어과	20010706	고지은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 요강>

- 독후감 대상작 : 선정도서 중 1편
- 제출처 :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 시상 : 우수작 1편, 가작 3편, 장려 5편
- 응모자격 : 동서대학교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